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47 호

2006. 2. 15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중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新年辭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災殃을 막고 幸福을 지켜주는 忠僕의 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順天金門의 矜持와 自負心을 떨치며 力動적인 삶을 謳歌하는 宗親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充滿하여 耄耋하시느일 모두 成就되시기를 祈願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中央宗親會의 大小爲先事業에 적극 同參하여 모든 事業計劃을 대과없이 達成하기까지 物心兩面으로 뜨거운 聲援을 보내주신 宗親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多事多難했던 乙酉年은 國家의 政體性 마저 흔들리고 對立과 葛藤속에 國民들은 虛脫과 失意속에 허덕이었습니다.

더욱 痛歎할 일은 國運을 責任질 政治人들이 極少數의 分別없는 여성들의 아우성에 짓눌려 우리 民族의 美德이요 孝 思想의 根幹이요 世界碩學들이 讚辭하는 正統家族制度를 廢止 하였습니다.

이 어찌 땅을 치고 痛歎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順金은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各界各層에서 주어진 環境에 順應하여 묵묵히 噴출려 일하여 기필코 目的을 成就하고 國難을 克服하는 氣像은 潛泳世族, 順金家門의 傳統이요 밝은 未來를 設計하여 國運을 開拓하는 일은 우리 後孫들의 당연한 任務요 道理라 하였습니다.

종친여러분

지금까지 會長團은 일정 하나로 中央宗親會 懸板을 부들켜 안고 不撤晝夜 몸부림치며 몸과 마음과 私財를 快擲하여 단단한 盤石위에 宗親會를 우뚝 세우고 줄

기차게 爲先事業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始祖墓域을 淨化하기 위하여 聖域化 事業計劃을 豎立하고 허물어진 史蹟地를 補修 重築 新築하여 同原齋의 偉容이 명실공히 가슴 뿌듯한 名所가 되었고 지나가는 識者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의 刻苦 끝에 大同譜를 編纂하여 宗親은 물론 大學圖書館 國公立圖書館과 관련 國內外 研究所까지 贈呈하여 後學들에게 研究資料를 제공하여 子孫萬代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일을 해냈습니다.

內的으로는 내일의 종사를 짊어질 대학생들에게 同原齋 嘉樂堂에 譜學 夏季教養講座를 개설하여 順金의 棟梁之材인 200여명의 大學生들이 修了證을 받았습니다.

또한 明哲한 頭腦를 가졌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學業을 계속할 수 없는 宗親들을위해 順天金氏 獎學會는 獎學金 擴充에 盡力을 다해 더 많은 학생들이 受惠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종친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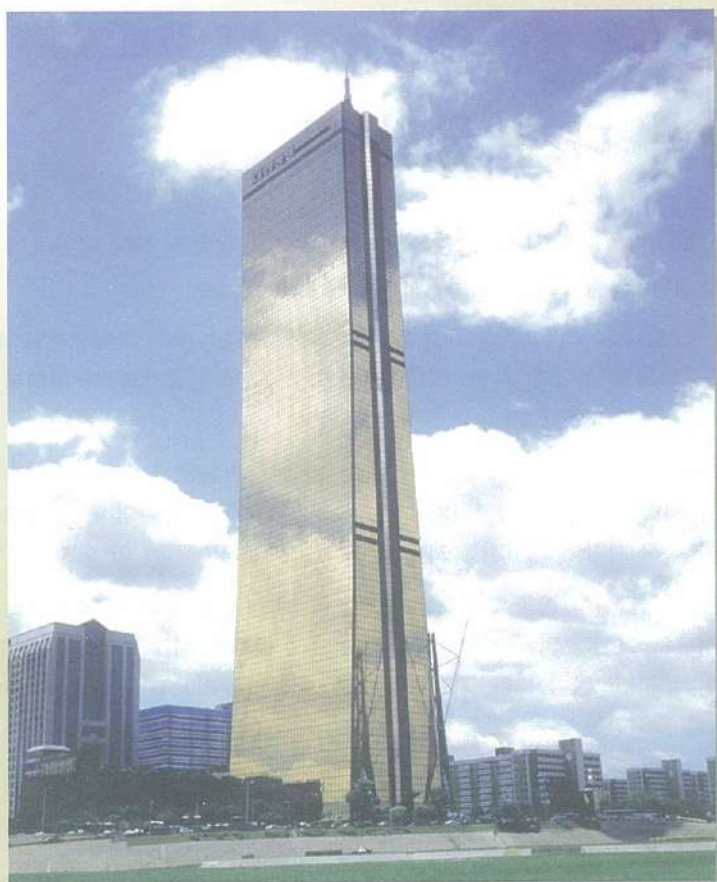
中央宗親會가 推進한 큰 爲先事業은 마무리 단계이므로 금년부터는 全國에 散在해있는 集成村의 史蹟地 淨化에 心血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宗親間에 親睦과 門中間의 和合을 위하여 門戶를 활짝 열어 衷情어린 意見을 濾過없이 受用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숙원 사업인 종친회관을 서울 원두에 우뚝 세우고자 합니다.

끝으로 敦睦과 紐帶의 물결 따라 大同團結하여 簪纓世族의 빛나는 전통 世世孫孫 이어나갑시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한화그룹 대한생명

謹賀新年

한화그룹

會長 金升淵 謹拜

景德齋 改築竣工

京畿道 廣州郡 退村面 元堂里
都有司 金權熙



蓮臺齋竣工

忠貞公墓域齋室
京畿道 驪州郡 加南面 蓮台里



막혔던 마음의 장벽 다시 뚫린 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며 산다. 갑자기 뜻하지 아니한 천재지변의 災害에 두렵고 해가 오고 가는 마당에 病魔에 시달리며 늙어감이 두렵고 점점더 어려워지는 周邊事情에 더욱 두렵다. 그러나 아무리 絶望的인 두려움 속에서도 새 희망은 있게 마련이다.

더글라스 맥아더 將軍은 75세 生日 때 “모든 사람의 마음 한 복판에는 記錄像이 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希望, 기쁨, 容恕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항상 젊음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떤 狀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면 어려운 일이 解決될 수 있다는 뜻도 되리라. 그렇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받아 들이기에 따라 狀況은 달라진다. 받아 들이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絶望 한다면 어찌될까? 주위에서도 보내는 어떤 希望의 메시지는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열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 주고받을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군가 보내는 메시지를 傳受하도록 마음의 기록실만은 열어 둘 일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떤 사람처럼 “이제 아무 希望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 기록실을 닫는 일은 결국 삶을 포기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狀況일수록 希望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시들어가는 불꽃도 다시 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스런 어린이들을 보라! 그들은 맨발로 웃으며 눈발을 뛰어 다닌다. 추위에 떨면서도 지나가는 강아지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나눌 줄도 안다.

철없는 어린이들이라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힘든 狀況에서도 童心の 純粹한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사랑스런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希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

아무쪼록 새해에는 온갖 苦痛으로 被害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로 挫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삶의 끈을 놓으려 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

이제는 찬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南北간의 障壁도 뚫린 이 마당에 우리 모두가 일시적으로 生活에 얽매어 默視的인 반목으로 얼룩진 마음의 障壁을 하루속히 和解로 무너뜨리고 한마음 한 뜻으로 보람찬 幸福을 누리시고 모든 일에 成願 成就하시기를 祝願하는 마음 懇切하다.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常任副會長：金 相 容

九潭門中位牌室을 奉安하면서



2005년 음 10월 13日 安東九潭參議公 菊潭先祖位 外 12位分の 位牌室을 마련하고 奉安과정에서 外地에서 오신 100餘名이 넘는 子孫들이 참석한 가운데 高靈行사중 順天金氏 位牌室에 安東 權執經 位牌와 西位와 柳氏란 位牌가 奉安된 것을 보고 前後事情을 모르는 外地子孫들의 의문점을 아래와 같이 해명코저 한다.

永嘉誌草稿本1卷61쪽 1602년 (永嘉:고려초 安東에 옛 地名)

九潭村 : 距縣三十里大野在其南洛水經其前花山峙其左柏山秀其右沙邊松樹連亘五里人適南野以舟通涉里前上下水有九潭故名云昔 尙州牧使權執經過此地愛其江山之勝始卜居自是人物富盛華構疊映每佳辰令節歌吹四起人以小京華稱之 節婦安處仁妻金氏居焉壬辰安東屯賊退據于此里中年少武士 自相團結每夜潛伺射賊殺傷其衆賊懷填臨去恣行焚蕩人物殆盡 里遂殘破云 土地五穀木綿皆宜南西果多產

구담촌은 縣(당시 豐山縣)에서 30리 떨어져 있다. 큰들이 그 남쪽에 있고 그 왼편에 洛東江이 앞을 지나간다. 花山이 우뚝 솟고 柏山이 그 오른편에 빼어나 있으며 그 오른편 모래시장으로 소나무 숲이 五리나 이어져 있어 풍광이 좋고 강나루에서 배를 타고 남쪽의 넓은 들로 건너가기도 했다. 마을 앞 위 아래로 아홉 언뚝이 있다. 그러므로 九潭이라 이름하였다한다. 尙州牧使 권집경이 江과 山의 좋은 경치를 사랑하여 처음 터잡아 살았다. 이로부터 인물이 부성하고 좋은 집들이 쌓여 비친다.

매번 아름다운 날이면 영절가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작은서울(小京華)이라고 일컫었다. 전부 安處仁의 처 金氏가 여기 살았다. 임진년에 안동에 주둔한 왜적들이 물러 여기 구담에 웅거하였는데 마을 가운데 젊은 무사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매일 밤 물레 톨을 타서 적을 살상함이 심히 많았다. 왜적들이 이에 분을 품고 분탕질을 마음대로 행하여 인물들이 거의 없어지고 마을도 드디어 헤쳐져 거의 파괴되었다고 한다. 토지는 오곡이나 솜농사에 모두 적합하다 남서쪽에는 과일이 많이 생산된다. 라고 구담을 소개하였다.

宗報 제45호 외손봉사 500년이란 제하에 권집경 감사위와 西位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된 바 있으나 위의 기록을 재조명한다.

尙州牧使 權執經

太宗 15年 乙未(1415)卒 字通夫 安東 權

公의 묘소는 안동 구담의 동쪽 월안산 성조곡(聖祖谷)에 있다. 墓前에는 圭首碑와 長明燈이 있고 文人石과 香大臺가 놓여 있으며 돌레에 自然石으로 쌓여져 있어 당시의 장례문화 연구대상이다. 公은 太宗때 領議政을 지낸 仲和의 從孫으로서 후사가 없어(당시 양자제도가 없었음) 長婿인 參議公 菊潭(諱 有濼) 先朝에서 九潭에 定着하시어 月庵齋舍를 짓고(東籬金允安 先生 文集 四卷 32쪽 重創文) 參議公 後孫들이 墓所를 수호하고 590년이 넘도록 매년 10월 시제를 모시고 있다.

50여년전까지만 해도 당시 학질(마라리아)이란 병에 걸리면 무서운 밤중에 권집경 감사묘 앞 문인석에 얼굴을 비비고 오면 병이 낫는다는 구전이 전해져 오고 있다.

安處仁의 妻 節婦 順天金氏
永嘉誌 七卷 187쪽 人物言行

順天金氏 : 粹澣之女 年十八適安處仁居九潭村處仁貞愍公安 之從侄宋思連誥告 辛巳死連處仁與其父珩俱被

順天金氏粹澣(司勇公)의 딸이다. 나이 열여덟에 순흥 안씨 安處仁(甲申譜 3卷 294쪽)에게 시집갔다. 구담에 살았다. 安處仁은 정민공 安珩의 從孫이다. 정민공이 宗憲連에게 무고를 당해 신사년에 죽었다. 이를 신사무옥이라 하여(1521 중종 16) 순흥 안씨 일본을 죽게 하였다. 신사무옥에 안처인과 그의 아버지 형(珩)이 연루되어 함께 죽었다.

그들의 죽음을 알고 열여덟 새색시는 물 한모금 입에 들어가지 않아 실신하였으며 홀로 남은 시어미 柳氏와 서울에서 갈 곳이 없자 친정아버지 粹澣에게 청하여 고부가 함께 구담에서 친정살이를 하면서 시어미를 지극한 효심으로 섬기기를 30여년에 그 정성과 공경은 지극히 하였다. 시어머니 柳氏가 돌아가시자 구담 서

쪽 粹澣公 묘소 부근에 장사 지내고 나이 일흔이 넘도록 시부모와 남편 안처인 忌日에 반드시 목욕제계 후 제사 지냈다.

그도 일흔이 넘어 돌아가시자 그의 아버지 묘소 가까이 고부 연분으로 산소가 모셔져 있다.

여기에서 節婦金氏의 아버지 長子로서 구담에서 태어나 무관으로서 구담 낙동강 용문언덕 위 枕流亭이란 아름다운 정자를 세우셔서 당시 어부사를 짓고 국문학사에 우뚝한 영친 李氏 농암 이현보(1467-1555)의 시구에 이르기를 俯可數魚鯿(부가수어별) 비람을 굽어보니 물고기와 자라의 노는 모습을 세일 수 있고 高堪 斗牛(고감문두우) 하늘을 쳐다보면 북두칠성을 잡을 수 있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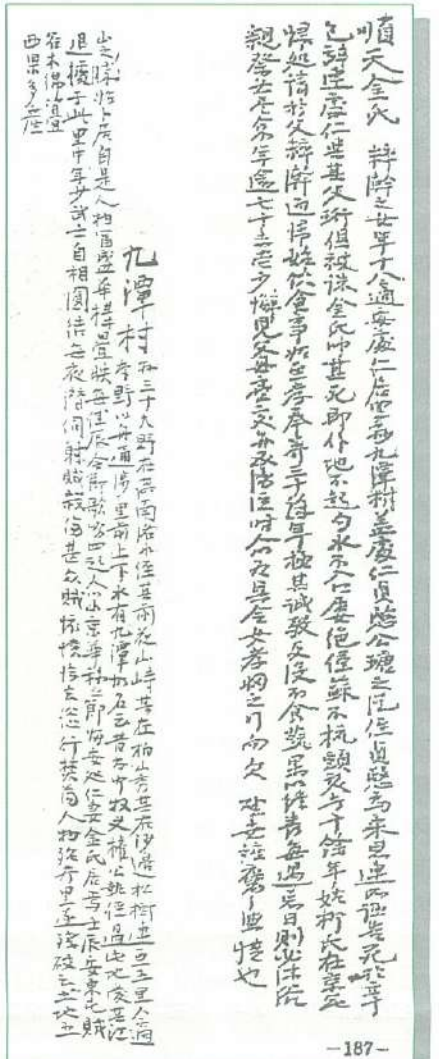
이토록 아름다운 枕流亭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安東의 선비文化 朱昇澤 共著)

- 임진년 7월 19日 안동에서 물러나 구담에 들어와 웅거한 왜적들이 8월 7日 상주로 퇴주할 때까지 보름이 넘도록 구담에서 분탕질을 하며 人物을 죽이고 동네를 불태우며... 라고 한다.-

그후 구담말에 취담(翠潭) 金基璜 (1841-1889) 사간원(司諫院) 正言을 역임

하신 공께서 옛(枕流亭) 그 자리에 그의 호를 따서 翠潭亭이란 정자를 세울 때 당시 권좌에서 물러난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 전국을 주유할 때 낙동강 구담 용문 언덕 위 정자를 짓는 것을 보고 翠潭亭이란 친필 현판을 써주어 지금까지 보존되어 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粹澣(司勇公)께서는 公의 祖母님(判事公配位 무종유氏) 墓所 보존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 당시 제지사족으로서 동래 정씨의 명당이라는 묘소와 判事公 때 위 묘소가 인근에 모셔져 있어 당시 권력(?) 행세하던 동래 정씨 문중에서 자기네 선산묘 안중에 들어오는 모든 분묘는 이장하라는 횡포와 우리 順天金門中の 비석을 깨뜨리는 등 갖은 수모를 당할 때 우리 金門에서는 묘소 보존만은 지켜야 하겠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자 公께서는 의외제에 짚자리를 걸머지고 멀지않은 동래정씨 문중 대표집 대청 앞에 짚자리를 깔고 단식에 들어가면서 "貴門에서 다른 일은 무엇이든 요구해도 행할터이니 祖母님 묘소만은 보존케 해다라라"는 요구와 함께 단식투쟁이 닷새 엿새 이어지니 정씨문중에서 저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문제발생과 他門의 묘소비석까지 깨뜨리고 훼손하였으니 順天金九潭門中에서 그냥 넘어갈지 않을 것 같으니 정씨 門中회에서 順天金門의 묘소만은 보존케 하자는 의논이 결정되어 司勇公의 단식 중단 요구에 단식 철폐일이 넘어 탈진 상태에이른 公께서는 묘소 보존이란 결정을 듣고 젊은이가 낮잠 자고 일어나듯 벌떡 일어나시며 "이제 내 할일은 끝났으니 나는 九潭가네. 정씨 양반을 당신을 문중 산소나 잘 관리 보존하게나"라는 냉소를 퍼붓고 짚자리를 돌돌 말아 지고 부축없이 털고 일어선 그 자리에는 대추씨와 꽃감씨가 한오름 남겨져 있었다. 公께서는 단식 투쟁을 가실 때 도포소매 자락에 대추와 꽃감을 넣어 가셔서 단식 중 간간이 대추와 꽃감으로 연명하신 것을 그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으니 그 지혜와 조상 숭모 정신은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남을 일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따라 九潭門中 位牌室에는 尙州牧師 權執經의 位牌가 첫번째 모셔져 있고 끝쪽에 粹澣(司勇公)의 따님 西位金氏와 그의 시어머니 柳氏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外孫奉祀 590년 출가년 奉祀 400년을 넘도록 매년 시월 시제를 九潭門中에서 모시고 있다.



-187-

壬癸契會

1. 유래

이 계는 안동 향내(鄉內)에 사는 임자년과 계축년에 출생한 60세 이상의 기덕인(耆德人) 11인이 도의(道義)의 교(交)를 맺고 우의(友誼)를 다지기 위해 만든 유계(儒契)로 동갑계(同甲契)에 해당된다. 계원들은 1613년(광해군 5) 가을에 안동의 광흥사(廣興寺)에서 첫 모임을 가진 뒤 8년 후에는 풍산읍 소산리에 있는 삼구정(三龜亭)에서 다시 계회를 가졌다. 삼구정 모임 이후에도 광흥사에서 몇 차례의 모임을 가졌으나 년도가 확인이 된 것은 1695년(숙종 21)



모임이다. 이 해 가을에 그 후손들이 선세(先世)의 유풍을 따르고자 광흥사에서 다시 모여 계사(契事)를 이었는데 그 감회를 글과 시(詩)로 남기고 있다. 그 후의 계사 관련 기록은 문헌에 보이지 않다가 1907년(순종 원년) 봄에 후손 49인이 선대의 유풍을 따르고 세의(世誼)를 다지기 위해 다시 광흥사에 모여 계를 추수(追修)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1968년 청성서원의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까지 각 후손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계회를 주최하여 열고 있다.

2. 구성과 운영

1) 구성

임계회는 약 400년 간 계승되어 오면서 많은 후손들이 선대의 유풍을 따라 계를 승계하였다. 그러나 전하는 좌목(座目)은 처음 수계시의 것과 1907년(순종 원년) 이후부터의 것만 남아 있다. 다만 수계 82년 후인 1695년(숙종 21)에는 그 후손들이 옛일을 따르려고 광흥사에 모여 계사를 이었으나 당시의 좌목은 전하지 않고, [추계록(追契錄)에 5인의 시(詩)가 전한다.

수계시 임계회원의 나이는 임자생이 62세, 계축생 61세로 안동 향중의 환갑을 넘은 기덕인이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모임을 묘사한 임계회지도(壬癸契會之圖: 순흥안씨 문중 소장본)를 보면 계원들은 광흥사의 전각 마루에 좌정하고 있고, 연소(年少)하여 계원에 들지 못한 3인은 전각 아래에 별좌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당시의 별좌 3인은 김운사(金允思)공을 모시고 간 8년 아래 동생인 동리(東籬) 김운안(金允安)과 권위(權暉)공의 사위로 계회도의 글씨를 쓴 개호(開湖) 김시주(金是住: 兵曹佐郎), 추애(秋厓) 신흥립(幸弘立, 成均館學諭)공 등이다.

계축(契軸)에 등재된 계원은 모두 11인으로 성씨별로 보면 안동권씨가 2인이며, 영해박씨, 경주최씨, 순천김씨, 순흥안씨, 진주하씨, 일직손씨, 예안이씨, 한양조씨, 김해허씨가 각기 1인이다. 이들 가운데 임자생이 7인이며 계축생이 4인데 좌목의 기술(記述)은 연치(年齒) 순으로 하였으며, 각 인물의 직역 성명 자호(字號) 본관 거주지 생년월일을 기록하였다.

임계회가 지금까지 전승되면서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좌목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여기에서는 창립계원 11인에 대한 내력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계축에 등재된 11인은 아래와 같다.

- 권위(權暉: 1552~1630)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字)는 숙회(叔晦), 호는 옥봉(玉峰)이다. 성균생원(成均生員) 심행(審行)공의 아들로 도촌에서 태어나 학봉 김성일 유일재 김언기

월천조목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약관에 동당시 별시에 합격하였으며 1601년(선조 34) 문과에 급제하여 전직 공조좌랑을 역임하였다. 뒤에 형조 예조정랑을 제수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저소로 옥봉집(玉峰集)이 전하며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에 있는 도계서원(道溪書院)에 배향되었다.

- 박흡(朴洽: 1552~?)

본관은 영해(寧海)이며 자(字)는 희원(希源), 호는 석림(石林)이다. 참봉(參奉)으로 예안의 기사리(棄仕里)에 살았다.

- 최첩(崔山+集: 1552~?)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字)는 정부(挺夫), 호는 남원(南川)이다. 유학(幼學)으로 포항(浦項)에 살았다.

- 김운사(金允思: 1552~1622)

본관은 순천(順天)이며 자(字)는 이득(而得), 호는 송음(松陰)이다. 박(博)의 아들로 구담(九潭)에서 태어나 1588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김천도찰방(金泉都察訪)을 역임하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공은 겸암 류운룡과 서애 류성룡 형제분의 문하에서 동생인 김운안 공과 함께 수학하였는데, 임진왜란 때에는 근시재 김해 의병장의 막하(幕下)에서 문서작성 등의 일을 도왔다고 한다.

- 안담수(安聃壽: 1552~1628)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자(字)는 군소(君邵), 호는 정봉(定峰)이다. 경로(景老)공의 아들로 지동(池洞)에서 태어났으며, 서애 류성룡의 문인으로 1582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0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현찰방 예빈시직장 사헌부감찰 성균관사에 예안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1608년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병산서원 창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원장(院長)을 역임하며 스승의 문집을 교정하였다. 선생은 제마(洗馬)로 제수되었을 때 광해군이 폐모(廢母)를 강행하자 상소하여 자전(慈殿)의 위호(位號) 복구를 청하였다가 삭탈관직이 되었으며, 그 후 인조반정(1623)으로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나 병환으로 사양하였다.

- 하우성(河遇聖: 1552~?)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字)는 회천(會千), 호는 송탄(松灘)이다. 유학(幼學)으로 글을 잘하였으며 송파(松坡: 지금의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살았다.

- 손경홍(孫慶弘: 1552~?)

본관은 일직(一直)이며 자(字)는 영조(榮祖), 호는 원곡(猿谷)이다. 벼슬이 판사(判事)였으며 신석(申石)에 살았다.

- 이호(李瑚: 1553~?)

자(字)는 여기(汝器)이고 호는 곡강(曲江)이며, 본관은 예안(禮安)이다. 예안이씨 안동임향조인 전(筵)의 손자이고 현감 유인(惟仁)의 장자로 풍현(豊縣: 안동시 풍산읍)에서 살았다. 서애 류성룡의 문인으로 필법이 뛰어나 병산서원을 창건할 때 당실문(堂室門)의 편액을 썼다.

- 조승선(趙承先 : 1553~?)
 자(字)는 언술(彦述)이고 호는 송헌(松軒)이며,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충의위(忠義衛)로 나천(羅川)에서 살았다.

- 허응길(許應吉 : 1553~?)
 자(字)는 길원(吉元)이고 호는 하암(河巖)이며,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현감(縣監)을 역임하였으며 하회(河回)에서 살았다.

- 권행가(權行可 : 1553~1623)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字)는 사우(士遇), 호는 매호(梅湖)로 송야(松夜 : 지금의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서 살았다. 선문(善文)의 아들로 태어나 숙부 송암호문(好文)에게 출계하였다.

학봉 김성일의 문인으로 161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장 김해의 휘하에서 관항유사(管餉有司) 및 서기(書記)를 역임하였다. 공은 용만 권기가 안동의 지방지(永嘉誌)를 편찬하려고 이름을 정할 때 '영가지'란 이름이 '화산지(花山誌)'란 이름보다 안동의 지세에 합당하다고 밝힐 만큼 식견이 뛰어났다. 뒤에 순릉참봉을 역임하였으며, 문집으로 매호집(梅湖集)이 있다.

2) 운영

임계회는 수계시부터 1695년 광흥사 모임 때까지는 국화와 단풍이 한창인 9월에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서는 봄 3, 4월에 취회를 열다가 1968년 청성서원(靑城書院) 모임부터는 음력 4월 10일을 정일(定日)로 하여 모임을 갖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11개의 문중 가운데 김해 허씨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10개 문중이 매년 활발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김해 허씨는 창립계원인 허응길이 하회(河回)에 살았을 당시에는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나, 뒤이어 정착한 풍산 류씨들에게 세에서 밀려 타지로 이향한 이후에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계의 재정은 자세한 자료가 전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보자 김동성씨의 말에 따르면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계의 재정이 튼튼하여 계원들이 해마다

전국의 명승고적을 유람하며 친목을 도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계금이 고갈되어 20년 전부터는 남은 계금 약300만원을 쓰지 않고 저축해두고 있다.

현재 임계회의 계원 수는 약 100인으로 이 중에서 정회원은 40인 정도이다. 이 가운데 회장 1인과 재정을 관리하는 총무 1인을 선정하여 회를 운영하는데, 임기는 3~4년으로 연임한다.

계회는 좌목에 등재된 순서로 문중별로 돌아가면서 주회를 하며, 장소는 주회 문중의 재실이나 서원 정자 혹은 조용한 음식점 등을 이용한다. 보통 한 문중에서 2~3인이 참석하여 30여명 쯤 모이며, 또 주회문중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총100인을 넘기기도 한다. 행사 경비는 한 해에 15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당해 행사를 주최하는 문중에서 부담해 오고 있다. 다만, 임계회에서는 임원들에게 10만원 정도를 통신포로 지원하고 있다.

근래에 있었던 계회를 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 영해박씨가 모임을 주도하였으며, 금년에는 순천김씨 구담문중의 주도로 안동시 풍천면 구담 2리의 국담정사(菊潭精舍)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계회는 행사를 주최한 순천김씨 문중에서 100여인이 참석하여 총130인이 참여하는 성대한 모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행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 제393주년 壬癸 會行事順序 ※

時到記 - 행사 참석자의 시도기를 작성한다.

座目 - 계원의 좌목 작성한다.

相損禮 - 계원들이 서서 서로 읊(揖)하며 예를 올린다.

先踐默念 - 임계회 창립 선조 11인에게 묵념을 올린다.


鄉里約束 - 한 계원이 한문으로 된 향약조문을 독약(讀約)하면 다른 한 사람이 한글로 풀어 낭독한다. 덕업상권장(德業相勸章), 과실상규장(過失相奎章), 예속상교장(禮俗相交章), 환난상휙장(患難相恤章) 등을 읽는 동안 나머지 계원은 경청하며 약조를 지킬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詩暗誦 - 시(詩) 암송은 선조들이 계회에서 읊은 시(詩)나 선조의 시에 경차(敬次)하여 지은 시를 낭송하는 순서이다.



화랑 용사촌

설립자 金 三 根 謹拜



- 화장용사촌 전무이사
- 회장용사촌 대표 취임
-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수료
- 국무총리 표상
- 제7회 5.16 민족상 수상(단체)
- 국민포상 수상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
- 국방부 조달본부장 우수업체 표창장
-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모범성실납세자 국세청 표창장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 순천김씨 중앙총친회 부회장

옛골토성

會長 金 昌 淵 謹拜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69-7

2006 謹賀新年 丙戌年



世蹟總攬 編纂 委員會

- 顧問 金鍾植
- 委員長 金昌淵
- 副委員長 金相容
- 委員 金榮熙
- 金行燁
- 金學元
- 金明在
- 幹事 金鳳煥

부산종친회

- 회장 인섭
- 부회장 나회
- 성복
- 성국
- 총무 병모
- 감사 동욱
- 현성

안동종친회

- 회장 철우
- 부회장 동
- 윤환
- 오현
- 병덕
- 감사 복재
- 석산
- 총무 동석
- 종백

大田 忠南 宗親會

- 顧問 一貞
- 東賢
- 東澤
- 會長 炳鮮
- 副會長 正雄
- 泰淵
- 讚貞
- 志燮
- 熙
- 基元
- 監事 淳元
- 喜貞
- 總務 東源
- 財務 碩禧

4代 海南 宗親會

- 會長 相允
- 副會長 在熙
- 總務 勝夫
- 財務 允源
- 監事 正熙

持平公派 宗親會

- 顧問 東澤
- 旺永
- 相洪
- 吉柱
- 承煥
- 柄錫
- 洙容
- 名譽會長 喆俊
- 會長 學元
- 副會長 熙
- 相大
- 鍾元
- 沅達
- 正市
- 在煥
- 貞順
- 喆元
- 監事 旗壽
- 順元
- 總務 東元
- 理事 東元
- 吉元
- 基元
- 萬生
- 珉弘
- 相泰
- 榮煥
- 和重
- 光元
- 淳煥
- 昌元
- 長元
- 亨柱
- 永煥
- 亨寬
- 光元
- 在錫
- 基錫

商衣院正公派

- 顧問 性勤
- 商錫
- 桂在
- 會長 東學
- 總務 商珉
- 監事 允在
- 瑞淵
- 東根

信川公 派宗會

- 顧問 桂在
- 會長 愚淵
- 總務 瑞淵

節齋公派 宗親會

- 顧問 哲俊
- 學元
- 吉柱
- 鐘元
- 亨寬
- 安千
- 洙容
- 桓榮
- 名譽會長 柄錫
- 會長 貞錫
- 常任副會長 亨柱
- 副會長 基元
- 永一
- 喆元
- 在煥
- 龍錫
- 龍元
- 基錫
- 西錫
- 總務 光元
- 監事 完錫
- 理事 吉元
- 斗錫
- 利厚
- 吉洙
- 旗壽
- 在錫
- 永煥
- 判榮
- 原錫
- 泰錫
- 俊喆
- 蓮錫
- 基錫
- 趾錫
- 東元
- 世煥
- 昌元
- 擴錫

萬后公 派宗會

- 顧問 性勤
- 會長 允在
- 總務 商珉
- 監事 商鎮

池袋交通株式會社

日本國 東京都板橋區幸町48番13
會長 金仁奭 謹拜
仁培

訃音

고 銘桓 종친과 延熙종친의
삼가 冥福을 빕니다.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5년 12월 27일 ~ 2006년 1월 31일

김관영	2006. 1. 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김동호	2006. 1. 9일	충청북도 보은군
김동철	2006. 1. 11일	충청북도 충주시
김광도	2006. 1. 11일	강원도 양구군
김방현	2006. 1. 12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만희	2006. 1. 16일	경상북도 문경시
김관성	2006. 1.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동천	2006. 1. 24일	경기도 고양시
김문휘	2006. 1. 25일	전라남도 여수시
김연만	2006. 1. 18일	충청북도 청원군
김봉배	2006. 1. 2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상욱	2006. 1. 10일	경상북도 영주시
김상준	2006. 1.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김상호	2006. 1. 23일	경북 포항시
김성연	2006. 1. 18일	울산광역시 남구
김순욱	2006. 1. 11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영환	2006. 1.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김용환	2006. 1. 24일	충청북도 제천시
김인좌	2006. 1. 13일	충청남도 부여군
김태연	2006. 1. 23일	충청북도 청주시
김학연	2006. 1. 12일	강원도 철원
김해동	2006. 1. 2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행응	2006. 1.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형광	2006. 1.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형동	2006. 1.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 호	2006. 1.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호철	2006. 1.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갑득	2006. 1. 11일	전라북도 정읍시
김동식	2006. 1. 13일	서울시 광진구
김운용	2006. 1.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원섭	2006. 1. 11일	서울시 광진구
김일재	2006. 1. 16일	경기도 이천시
김한용	2006. 1. 23일	경기도 수원시
김인성	2006. 1. 23일	경기도 화성군
김인식	2006. 1. 26일	경기도 용인시
김창원(김용근)	2006. 1. 16일	전라북도 익산시
김동국	2006. 1.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 명	2006. 1. 18일	경기도 양주군
김승생	2006. 1. 11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양춘	2006. 1. 11일	부산광역시 남구
김옥남	2006. 1. 26일	경기도 고양시
김인성	2006. 1.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김지탁	2006. 1. 16일	경상북도 문경시
김병렬	2006. 1.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김인영	2006. 1.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호윤	2006. 1. 12일	울산광역시 중구
김병화	2006. 1. 12일	인천 동구 만석동
김공남	2006. 1.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세희	2006. 1. 25일	인천광역시 남구
김동경	2006. 1.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천섭	2006. 1. 2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태정	2006. 1. 1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김희연	2006. 1. 11일	경상북도 상주시
김재순	2006. 1.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영철	2006. 1. 24일	경기도 의왕시
김창환	2006. 1.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종오	2006. 1.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동철	2006. 1. 26일	경기도 광명시
김경영	2006. 1. 12일	경기도 동두천시
이영분	2006. 1. 17일	화성시
김정식	2006. 1.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병렬	2006. 1. 26일	경기도 이천시
김종희	2006. 1.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규장	2006. 1.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병규	2006. 1. 23일	울산광역시 중구
김수영	2006. 1. 11일	경상북도 상주시
김백원	2006. 1.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김용환	2006. 1.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동식	2006. 1. 10일	충청남도 금산군
김사원	2006. 1.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익영	2006. 1.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 의 원

김석연	2006. 1. 18일	경기도 안산시
김완선	2006. 1. 17일	경기도 고양시

이 사

김동석	2006. 1. 16일	경상북도 문경시
김상기	2006. 1. 16일	광주광역시 동구

무 명 인

2006. 1. 12일	정보/부산대
2006. 1. 16일	국민은행/금촌지점
2006. 1. 18일	우리은행
2006. 1. 19일	신한은행/관리동지점
2006. 1. 19일	모가농협
2006. 1. 19일	기업은행/무교동지점
2006. 1. 18일	우리은행/석관동지점
2006. 1. 23일	춘천농협/남춘천지점
2005.12. 31일	진점농협/풍향지점
2006. 1. 20일	신녕농협
2006. 1. 24일	하나은행/압구정지점
2006. 1. 25일	일산농협
2006. 1. 24일	산동농협/장천지점

增 訂

宗報 第46호

- 1면 9째줄 : 下賜 → 贈呈
- 3면 5째줄 :
나약한 부유(腐儒)로써가 아니고 한 국가를
떠받치는 동량지재(棟梁之材)로써 진유(眞
儒)의 면모등
- 회비 : 漏落者名單
- 이사 : 김명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 金默 → 金相默

용기에 대하여...

모험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성,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Change the Life!

Korea Life
대한생명

